

서울 전역 '역사도시' 만든다더니 6곳 중 5곳이 종로구... 취지 무색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동네역사관 사업' 중단으로 다른 자치구 시설 조성 무산 프로그램 시민 참여도 저조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에 신규 조성·건립 및 복원한 역사문화시설 6곳 중 5곳이 종로구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1년까지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총 4개 분야에서 56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2017~2021년 추진한 1기 기본계획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공예박물관.

1기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새롭게 조성·건립된 역사문화 시설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종로구), '서울생활사 박물관' (노원구)이 있다. 이와 함께 엘버트 테일러의 저택인 '달쿠사' (종로구)가 원형 복원됐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을 제외하면 전부 종로구에 소재해 있다.

게다가 시는 '동네역사관 설립 지원사업'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는 시민 스스로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네역사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동네역사관은 지역사회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 등을 발굴·향유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종로구 외 다른 자치구에 생길 수 있는 문화역사 시설 조성이 무산됐다.

시 스스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제1기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 전체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역사문화유산 활용·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도 또한 저조했다. 시가 작년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에 참여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7%밖에 되지 않았다. 일상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즐기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절반(52.9%)에 그쳤고, 관련 행사 참여 횟수는 1.79회로 적었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 역사성 회복 등에 시는 향후 5년간 1조28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벤처·스타트업 지원 2026년까지 5조 펀드 조성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4년간 3500억 자체 예산 확보 정부 모태 펀드·민간 투자 연계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스케일업 펀드 1조4000억원, 첫걸음동행펀드 2500억원, 디지털대전환펀드 1조원, 창업지원 펀드 1조원, 서울바이오펀드 75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6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 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스케일업과 창업지원 펀드에 대해 오는 8일 각 100억원, 4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추진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내달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출자 공고도



서울시청.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핀테크, 콘텐츠 등 미래유망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보릿고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 공모 '수시 신청' 전환

연내 후보지 3.4만 호 추가 선정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그간 공모로 확보한 9만

6000호 외에 연내 재개발 후보지 3만 4000호 이상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시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포털' 홈페이지나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中企 지원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社 지원사업 15개社 선정... 최대 2200만원 지급

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

전략의 하나인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

증확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충)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작공정 지원을 받아 생산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0배 이상 증가했다. (주)에스엠케이(에스엠케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이를 충전하는 통합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누리집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을 받아 CES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판로개척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240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센클라우드' 구축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서울시교육청, 10만 교직원에게 스마트·편리한 업무환경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센클라우드)'을 구축했다. 지난달 17일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8일부터 학교까지 전면 개통·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센클라우드는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에게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소통과 업무협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업무용 통합협업플랫폼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개통하는 센클라우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 행정혁신의 일환이다. 10만 교직원이 다양한 업무

무환경에서 협업 도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온-택트 시대 도래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교직원이 업무처리 시 사무실, 자택, 출장지 등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라인 협업시스템 부재로 소통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 TF'를 구성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한 맞춤형 자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5월 8일 (월) 음력 : 3월 19일

수도권 날씨 9~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0 | 해질 / 19:28

연천 4/23, 동두천 6/24, 가평 5/24, 양평 6/23, 용인 9/21, 평택 6/22, 수원 9/21, 인천 10/19, 파주 5/23, 서울 9/22, 백령도 11/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지옥의 화염' 휩싸인 바흐무트... "러, 백린탄 투하" /사진 뉴시스
▲美 주말 한낮에 대형 쇼핑물 추기난사...최소 9명 사상

▲북한 서해 불법한적 올해 38건..지난 해 건수 넘어
▲中 단둥서 北 트럭 움직임 포착...北, 3년만에 中 무역재개 관측



▲英 찰스 3세 대관식...反군주제 시위 대 등 52명 체포 /사진 뉴시스
▲中시진핑, 英 찰스 3세 대관식에 축전...“평화, 함께 추동해야”